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 이내 권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5월 31일 기준) 1만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업에 직접 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상 연면적 20m²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

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 무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경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온 권외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태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사내 혁신위원들과 지역주민, 자치단체 의원, 대학교수, 협력업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0명을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혁신과제 발굴, 시민들의 눈높이 맞춰

전기안전공사, 시민참여혁신단 위촉 공식성 강화 정책 개발 의견 보태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사업 과제 발굴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사내 혁신위원들과 지역주민, 자치단체 의원, 대학교수, 협력업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0명을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혁신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직원안전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전기 안전 교육사업 확대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추진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대내외 소통협의체다. 공사는 혁신과제들의 실적 점검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앞으로 정례적 회

의를 통해, 공사의 공식성을 강화할 정책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 추진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태어 나갈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2기 혁신단의 새 출발을 계기로 각계 시민의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국민 안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증상품 취급... 농어민 금융 접근성 ↑

신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MOU

이제 전국의 신협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하게 됐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축협, 수협)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전·남해·하동)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협에서도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대출받은 임대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축협, 수협)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분양자의 보증상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예정자와 임차계약자는 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협은 HUG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신협은 지난 2018년 HUG와 정비사업 대출협약을 통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이주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협은 조합원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년부

터 HUG와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증상품을 신협에서도 취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ESG경영 등 아이디어 제안 국민 참여 거버넌스 실천

aT, 국민참여혁신단 3기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 'aT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공사는 경영과 사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채널로 국민참여혁신단을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3기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원자 115명 중 지역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회사원·지역업자·농업인·환경단체 활동가 등 20명을 선발했다.

올해 국민참여혁신단은 연말까지 ▲ESG경영 성과확대를 위한 제안 ▲공사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온라인 국민 제안함 등을 통한 신규 아이디어 제안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민참여혁신단의 아이디어 84건 중 인플루언서 양조장 랜선 방문 의식업체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연계한 밀키트 제작 등 7건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aT 김춘진 사장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책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날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영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주영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따뜻한 금융, 미래 그리다

전은, 햇살론17·성실상환우대론 등 지원 저신용자·취약계층 금융사다리역할 '특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금융비용 절감 상품인 '햇살론17'과 '성실상환우대론12'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이력이 있어 대부분 업체로 내몰리는 이들의 금융기관 안착을 돕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224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햇살론17'의 높은 연체율(6월말 현재 11.98%)이 은행 전체 연체를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액을 더욱 확대해 6월말 기준 6만 262명에게 4,524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는 자산규모 대비 은행권 최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더 나아가 서민금융 이용 고객들의 실질적 채무 부담 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햇살론17 대출 고객 중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성실상환우대론12' 상품을 판매해 기존보다 약 30% 낮은 금리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성실상환우대론12'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북은행에서 햇살론17 대출을 받은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약 500명씩을 선정해 보다 낮은 금리로(한도 1,400만원, 금리 약 12%) 대출해 주는 전북은행의 대표적 금융사다리 대출상품으로 3월말 현재 1.729명에게 110억원 상당을 취급했다. 향후 '성실상환우대론12'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조건 충족시 금리를 8%로 추가 감면하는 '성실상환우대론8' 상품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한국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고객의 상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우대론12'와 같은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 고객들의 신용관리와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최근 발표된 '햇살론15', '안정망대출II', '햇살론뱅크'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모색

전북바이오진흥원 세미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바이오산업을 국가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전라북도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가생물공학정책연구센터 김홍열 센터장의 바이오산업 현

황과 미래 유망기술'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북대학교 김대혁 교수가 농축산업 미생물산업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현황에 대해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업 미생물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주)엔비엠 권태호 대표가 전북 바이오기업의 혁신소재 개발 성공사례로 (주)엔비엠 그린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사업화 현황을 발표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본 세미나가 지역의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며 "최근 진흥원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기관명을 개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리산전북사무소, 여름 공원관리 특별대책 운영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 급증에 따라,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는 8월 15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주차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집중단속을 실시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